

제 214 호

예수 성탄 대축일

1976. 12. 25.

숲정이

| | |
|-----|-----|
| 발행인 | 김종택 |
| 인쇄인 | 법석규 |
| 주간 | 조성호 |
| 편집 | 한상갑 |

편집실 : 전주시서노동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 1976년 성탄 메시지 ◆

진리와 사랑으로 믿음을 증거하자!

친애하는 교구내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교형자매 여러분! 지금 온 누리에는 주님의 탄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오기도 장엄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한해가 기우는 만종(晩鐘)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새 시대 새 역사가 시작되는 태초의 종소리, 그러나 세기(世紀)가 맞도록 만방에 울려 퍼져야 할 인류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거기에는 구분과 차별과 과 경계도 없어 주어진 운명처럼 천대를 받고, 지위권 의무처럼 묶이어서 굴욕을 당하는 사람에서부터 천부의 부유인양 향락하는 자와, 타고난 권력인 양 남을 지배하며 억누르는 자들과, 인간의 죄와 세상의 악을 보고 가슴을 치는 사람이나, 죄와 악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도 하느님의 사랑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진실하지 못함을 깨달음에 진실해 지고, 의롭지 못함을 고백할 때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한순간의 회개와 단 한번의 고백을 가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구세주는 역시 그들의 희망 이십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갖는 것은 역사가 낳지 과거의 추억을 그리워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명 속에 주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절은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탄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결코 원수를 미워하거나, 죄인에게 돌을 던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심은 우리에게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보이고, 또 이 자비하심에 의하여 재생의 세례와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 작용하시기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과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고,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다 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다 함께 구세주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인이거나, 죄인이거나 빈부귀천의 아무런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구세주는 실로 만민을 위한 사랑의 왕이십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나는 1977년을 「행동하는 믿음의 해」로 정했습니다. 믿음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야고버 2.17).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인 것과 같이 행동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입니다(야고버 2.26). 그런데 행동하는 믿음은 바로 사랑의 실천이어야 합

니다. 사랑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독생 성자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바로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시고 사랑을 실천으로 증거하기 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로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오시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이렇게 쉼 두칠미 아버지에게 대한 믿음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마침내는 골고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와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믿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바탕은 그리스도에게 있고, 우리의 믿음의 행동화는 복음의 생활화(福音의 生活化)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이제 우리는 강생하신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메시지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노라"(요한 18.37)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진리에 살고, 진리에 죽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훌륭한 믿음의 행동화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난국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바쳐가며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커서리는 일체의 것과 싸워 이겨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가장 어둡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감각의 둔화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몇년 동안 시련을 겪기는 하였지만, 진리를 추구하려고 애쓴 <3면으로 계속>

숲정이 산책





3.1사건 항소 공판 방청기 (7·8·9)

정 승 현 신부

17일 오전 10시.

구속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들어왔다. 문정현 신부님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초췌하게 보인다. 아픈 다리를 절면서 들어오는데 그래도 미소는 잃지 않고 계셨다. 문신부님의 동생 수녀님과 동생 신부님이 걱정스럽게 바라보는데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인가? 신부님의 어머니께서도 오셨는데 방청권이 없다고 해서 법정에서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다. 아들의 재판도 마음대로 방청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문정현 신부님께서 다시 한번 증인과 증거물을 채택해 주기를 요구하셨다. 그러나 또 다시 그 요구와 어긋난 호소는 묵살되었다. 피고인들 가운데서 재판부를 기피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얼마동안 변호인단과 피고인들이 이 점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휴정되었다. 재판이 속개되었을 때 문익환 목사님이 전체 피고인들을 대표해서 정식으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발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판은 계속되었다. 변호인들의 변론이 시작된다.

1심에서 증인·증거물 채택이 충분히(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한 것인데 2심에서도 피고인들이나 변호인단이 바라던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변호인들의 변론은 이우정 교수가 말한대로 피고인들의 뒤엎힌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었다. 교수는 「이제 형량이 얼마가 주어진다해도 한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진지하고도 학구적인 변론,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찾아낸 객관적 진실을 밝히는 명쾌한 논조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감동시키는 것이었다.

처음 변호하게된 박세경 변호인의 변론을 통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이 자리가 57년전 3·1독립만세 사건이 재판받던 곳임을 알았다. 당시의 일본인 변호인은 의사표시의 자유는 인류의 본능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한다. 당시에도 나라의 독립과 변명을 위한 조선인들의 의견은 귀한 것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변호인은 3·1구국선언문이 온건하며 선동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런 온건한 선언문을 공소한 사실이 국가에 얼마나 큰 손실을 자초하였는지에 대해 강조하였다. 검찰로 대표되는 정부가 피고인들의 본뜻을 전혀 귀담아 들으려하지 않고 반정부-십지어는 반국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죄목을 씌우려는 의의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지적한 잘못들을 솔직히 시인하지 못하고 은폐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주의를 해야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고 인간답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진짜로 「잘사는 것」이라는 점을 말했다 해서 무어가 잘못되었다는 말인가?

박세경 변호사가 이승만 정권은 독재를 하지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가지 점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변호사는 이승만 박사가 독재자가 아니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일곱가지로 밝힌다: ① 비밀경찰이 없었다. ② 반대당이 국회를 소집할 수 있었다. ③ 사법부를 지배한 일이 없다. -선거 무효의 재판이 얼마나 많았는가? ④ 경제, 금융, 물가등을 좌지우지하지 않았다. ⑤ 홍보수단

을 독점하지 않았다-서울 신문외에는 모두가 소위 야당이었다. ⑥ 종교사찰이 없었다. ⑦ 정권이 바뀔 다음에 정치범들이 석방된 사례가 없다.

소견이 좁은 정부는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없다. 정부는 보다 큰 야량을 보이라. 특히 그리스도교에 대해 넓은 이해가 있기를 촉구한다면서 변호인의 변론을 맺었다. 이후 2명의 변론이 다음 날 저녁 늦게까지 계속되었다.

17일 밤은 청주에서 자게 되었다. 청주교구 새신부님의 서품을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청주에서 자게 되었다. 꿈이었다. 방청을 마치고 거리에 나왔는데 거리 저편에서 서울 대학교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있었다. 무슨 뇌물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모양인데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들과 거리가 가까워지자 여럿이 달려와서 합세하기를 권한다. 그 때 나는 거리 한 복판에 있는 똥똥에 신발을 빠뜨려서 그걸 막대기로 건지려하고 있었다. 더러운 똥으로 범벅이 된 신발을 건져서 어디에 쓸 것인가? 데모 대신 똥똥은 신발을 건지겠다는 나의 대답을 듣고 데모대는 진진해가고 나는 신발을 건지려 애쓰다 잠이 깨었다. 잊고 싶은 꿈이었다.

18일.

아침 10시부터 시작된 변호인단의 변론은 오후 7시가 가까워오자 끝이 났다. 마지막으로 나선 변호사는 김광일씨-멀리 부산에서 변론을 위해 달려왔다 한다. 그는 피고인들을 죄 있다고 변호(?)하였다. 이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가의 안정을 파괴하는 자들이니 유죄판결이 마땅하다 했다. 그러자 피고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게 변호나 아니면 무엇이나? 그래서 변호석에서 내려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다시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 하여 다시 변호석에 서서 이야기를 하려 하자 이제는 검사들이 말을 막고 나섰고 마침내는 퇴정하였다. 변호를 계속하려는 김변호사의 '의사는 무시되고, 판사는 이날의 재판을 마친다고 선언하고 퇴정하자 방청석도 어수선해져 버렸다. 그래도 변호사는 자신의 말을 계속하였다. 소란으로 그의 목소리는 잘 들을 수 없었지만 「우리는 또다시 빌라도의 재판을 재현해서는 안된다. 예수와 같은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할 수는 없다. 그 피의 책임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지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였다. 그아픈 마음, 피 맺힌 절규는 비록 피고인, 검사, 판사, 십지어 방청객들의 외면을 당하였지만 재판이 끝난후 김 변호사를 위로하는 말들이 불구속 피고인들 사이에서 오고 갔다.

20일 10시.

하루 종일(밤 10시 30분까지) 재판이 계속되었다. 윤보선 전 대통령께서는 최후진술에서 검사측에 물었다. "인론의 자유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데 도대체 언론의 자유가 있소 없소?"라고. 재판부에 물었다. "나라를 위해 위정자들이 잘못한다고 말할 수 있소 없소?"하고. 참으로 자명한 사실이 왜 이리 왜곡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비참한 일이다.

<교구 사목국 부국장>



사회 모든 분야에서 富의 公正分配 실현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요, 강생하신 구세주의 福音精神

—김수환 추기경 성탄 메시지

천주교 서울 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은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적 불의와 부정이 일
소되고 인간성과 인간생명이 존중되는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성탄 메
시지를 발표했다.

김추기경은 이 메시지에서 「근로자의 희생위에 축제가 자행되고 인간이 혹사되면서
정치나 경제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그런 상황속에서는 약자가 설 땅이 없으며 사회의 안
정과 평화도 있을 수 없다」고 지적, 「인간을 거스르고 약한자를 멸시하여 짓밟는 일체
의 억압과 불의와 부정에 맞서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 정신」이라고 밝혔다.

이 메시지는 「우리는 누구도 무관심때문에 굶주림과 헐벗음속에서 버림받아서서 안
되며 누구도 부당하게 억눌리고 짓밟혀서는 안되겠다」고 말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 걸
쳐 정의가 구현되고 부의 공정한 분배가 실현되고 묵인이는 풀리고 억눌린이는 해방되
어야 한다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요, 강생하신 구세주의 복음정신」이라고 말했다.

〈東亞日報 1976년 12월 20일자 7면에서〉

〈1면에서 계속〉

그만큼 우리 교회는 크게 성장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진을 계속
해야만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결코 후퇴해서는 안되겠고, 꾸준히 진리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쓴잔을 마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나 겨레를 위해서 그리스도안에 출몰 진리를 추구해 나가
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온 겨레를 위해서
사랑에 살고 진리를 추구한다면 우리 교회는 참으로 이 역사속에 구세주 그리스도의
강생의 신비를 구현해 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는 곳에는 성탄의 밤에 진정 어두움을 밝혀줄 별이 빛날 것이며, 구세주는 분명 거
기에 함께 계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1976년의 암흑에서 벗어나, 막아오는 새해 1977년은 진정 진리와 사람
이 이 땅위에 자리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모든이
들에게 이밤에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충만히 내리기를 다 함께 뜻을 모아 기도 드립니다.

1976년 성탄절

천주교 전주교구장 주교 김 재 덕

요심이 (178) 김병은



*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

임금님 찻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② 5013
김원준(야고버)

* 여성 여러분에게
땀을 선사합니다 *

세느 의상실

최 춘 자(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전주극장 동편일구
전화 ⑥ 6219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성심당한약방

이상범(필노리아노)
육교 밑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③ 4544

각종 생과자 식빵 및 케익

미미제과소

전화 ⑥ 6589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 은행 옆〉

김민주(가타리나)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미성당 시계점

장금태(방지거)
전화 ③3301 (자택 ③8548)

건강 상담, 특수 처방

동양약국

군산시 문화동 880-5
〈카디날 장갑 공장 옆〉
약사 김예자 〈마리아 막달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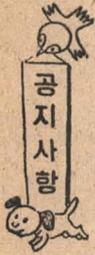
□ 개월안내 □

★ 언제나 찾아 주세요 ★

수석(水石)치과의원

전주시 중앙동 3가 42~1
〈박 소아과〉 앞
원장 김현(아오스딩)
전화 ② 1665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평화의 날 신년 교례회**(77년 1월 1일 오전 11시, 가톨릭 센터)
평화를 비는 새날, 주교님을 모시고 모두 한 자리에서 인사를 나누시다. 삼가 초대합니다.
※ 각 본당에서는「평화의 날」교향 메시지를 모든 교향자매들에게 주지시키시고, 본당 나름대로의 행사를 갖기 바랍니다. 행사 예고 소식을 12월 27일까지 출정이에 보내주세요.
2. **그리스도 공동체 목사회**(77년 1월 1일 오후 2시-3일, 가톨릭 센터, 회비 4,300원)
신정 연휴를 이용할 수 있는 직장인을 위한 목사회임. 희망자는 29일까지 사무국에 연락바람.
3. **꾸르실로**(신청 마감...76년 12월 31일)
■ 남성 10차...77년 1월 18~21일 ■ 여성 3차...77년 1월 25~28일
□ 연락처...전주 성심여고 대 꾸르실로 사무국 ※ 수강 희망자는 본당 신부님 추천 받을 것.
4. **혼인 문제 상담**(일시...77년 1월 5일 <수> 오전 10시-오후 4시, 교구청에서)

(중앙)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김진석
③3874 사도 회장 이상용

- ★ 축영세! 새로운 형제들을 기뻐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1. 사도회 임시 총회(확대회의): 공식 미사 후, 강당.
 2. 살회 윌레회: 다음주 오후 2시 반.
 3. 꾸리아 연중 친목회: 1월 3일 오전 11시~오후 4시
 4. 환자 봉성제: 매월 첫 주간에
◎ 환자를 모시고 있는 신자들은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전 10시(어머니 미사 후).
 6. 성경과 성가책을 지참하고 미사시간 엄수하여 미사에 참여 합시다.
 7. 지난주 감사 헌금: 경원동 익명(5만원).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박영희
사도 회장 박종용

1. 형제회 윌레회: 오늘 공식 미사 후
2. 성체 현시: 12월 31일(금) 밤 11시 반.
3. 성탄 미사: 자정미사(31일 자정)
새해미사: 1일 오전 10시, 오후 3시-아동미사, 저녁 7시 미사.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1. 성당신축 헌금: 이종기(2천원), 김진수(2천 5백원) 채순례, 박중화, 오균자, 임옥신, 강옥분(각 5천원) 홍희숙(7천원), 최순금, 오유순, 이원오, 김순환(각 1만원), 서양순(2만원), 임옥순(3만원).
주계 126,500원, 총계 5,425,500원.
2. 성탄 제대 꽃 봉련: 서 딸가리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윌레회: 다음주일 공식 미사 후
◎ 정부회장, 각 분과 위원장 및 위원, 각 구역회장 레지오 마리에 간부님들은 빠짐없는 참석바랍니다.
2. ★ 축세례...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축하합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준

3. 기념일 및 성당 수리비 신입금 미납자는 속히 납부 바랍니다.
4. 환영! 부제님이 방학동안 우리 본당에서 영적지도 및 계신성 단체 육성에 수고를 하여 주십니다.
5. 판공 성사 및 성탄 준비와 행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한기
보좌 신부 김윤석
사도 회장 유희중

1. 성탄 및 후보 침례 축일 행사
◎ 주일학교 중고생 특별 발표회
24일 밤 8시~11시 까지.
◎ 성탄미사 및 다과회: 전 신자 및 후보 침례 축일 발발 노래자랑(25일 오전 1시).
2. 사랑의 선을 교환: 24일 미사에 참여하시는 분은 선물 1점씩 준비 바랍니다.
3. 예비신자 교리 1월 15일까지 합니다.

(상관)

전화 77 주임 신부 이상호
사도 회장

1. ★ 축! 영세...주님안에 모두 한 영세 축하미사, 부부 영세 재혼식.
2. 주임신부 영명 축하식: 10시 미사 후
3. 클라라 형제회: 오후 1시 반.
4. 장우회 연중 친목회: 25일 밤.
5. 성 가정회 총회: 오늘 저녁 미사 후 (가정 봉헌 미사 함께)

(3지구)

전화 77 주임 신부 이상호
사도 회장

1. 미사시간: 주일(공식미사-오전 10시, 학생미사-오후 4시), 평일(매일 오후 7시).
2. 학생 및 아동교리: 주일 오후 2시 30분.
3. 사도회: 매월 공식 미사 후(11시).
4. 예비자 교리: 매주 공식 미사후(11시).
5. 평화 미사: 1월 1일 오후 7시.
6. 감사합니다: 서학동 오현택 신부님과 김영구 신부님의 많은 수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 지구 본당 | 소식 | 봉헌금 | 지구 본당 | 소식 | 봉헌금 |
|--------|--------------|---------|--------|-----|----------|
| 제 1 지구 | 창제 안류인들 | 6,050원 | 제 3 지구 | 주현동 | 94,805원 |
| | 고김부수신배 | 29,830원 | | 창인동 | 원 |
| 제 2 지구 | 대문울 | 15,025원 | 제 4 지구 | 중앙 | 102,245원 |
| | 유명동 | 원 | | 노송 | 42,725원 |
| 제 3 지구 | 야동 | 10,460원 | 제 5 지구 | 중진 | 56,350원 |
| | 동동 | 65,150원 | | 부자 | 35,035원 |
| | 합용 | 19,635원 | 제 6 지구 | 서학 | 40,405원 |
| | 연안 | 원 | | 동상 | 115,820원 |
| | 회장단 회의, 고백성사 | 원 | | 무장 | 16,305원 |
| | 산산 | 7,520원 | | 진남 | 10,555원 |
| | 여산 | 21,595원 | | 순창 | 원 |
| | 배 | 13,000원 | | 안림 | 21,170원 |
| | | 20,950원 | | 창실 | 원 |